

2017년 7월 10호

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한 노트



윤태영,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 (2014) 中



차 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08]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을 찾아라

‘정치하지 말라’는 키워드와
‘바보 노무현’을 엮어서 한 문단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을 떠나 보냅니다.
대통령님이 언젠가 말씀하셨듯이,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정치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바보 노무현’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더는 혼자 힘들어하시는 일이 없기를,
더는 혼자 그 무거운 짐 안고 가시는 길이 없기를
빌고 또 바랍니다.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09] 글과 그림은 통한다 글에도 가선을 그어 보자

사람 얼굴을 묘사하는 경우,
머리 한가운데에서 코를 통과하는 중심선을 세로로 그린다.
이 중심선 위에 눈, 코, 입이 위치할 곳에 각각 가로로
보조선을 그린다.
일종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말하자면 머리카락, 눈, 코, 입이 들어갈 위치를
정해 두는 것이다.

전체 글을 관통하는 큰 흐름을 먼저 생각한다.
일종의 중심선이다.
여기에 각각의 내용을 담을 항목을 미리 정한다 

[10] 글에게 생명을, 생명의 리듬을 주자

그 글은 맛있게 쓰였는데,
읽는 사람도 그다지 재미가 없었던지 몇 줄
읽다가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글은 맛있었다. 재미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줄 읽다가 말았다.

리듬을 가지면서 문장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준다.

꼭 3.3.7일 필요는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리듬이면 된다.

시작은 가급적 짧은 글로 한다 

[11] 가끔은 시인이 되자 래퍼가 되자

그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낮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는 또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을 항상 나누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웃입니다.

**각운법은 듣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지나치게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다.
강조할 핵심문구를 문단마다 반복하는 방법도 좋다.**



[12]

접속사,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자
흐름을 중시하자

나는 집으로 갔다. 그런데 엄마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으러 친구 집에 갔다.

나는 집으로 갔다. 엄마가 없었다. 나는 밥을 먹으러 친구 집에 갔다.

나는 집으로 갔다. 엄마가 없었다. 밥은 먹어야 했기 때문에 친구 집으로 갔다.

글을 매끄럽게 쓰는 데 치중하는 게 우선이다.

접속사를 쓰지 않으려면 뒤에 오는 문장의

구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접속사를 빼고 뒷문장을 고치는 훈련을 해 보자 

[13] 열의 재료를 가지고 다섯을 만들자

글을 쓸 때면 누구나 한 자
한 자 심혈을 기울여 씁니다.
많은 노력과 정성이 담깁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쓴
문장은 아깝습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감히 줄이고
압축해야 합니다.

누구나 심혈을 기울여 글을
쓰기 마련입니다.
정성과 노력을 담은 문장은
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감히 줄이고
압축해야 합니다.

**절반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칼질을 해 보자.
대부분의 독자들은 짧게 읽고
많이 배우기를 기대한다** 